

금산군, 인삼 유통구조 개선 위한 첫 공청회 개최... 공정 거래 기반 마련 나선다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5.04.08 12:48

생산자·유통인·제조업체 160여 명 참석...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 논의



금산군청사 전경.

충남 금산군이 인삼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군은 최근 '인삼도매시장 유통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인삼 유통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는 인삼 생산자, 도매상인, 제조업체 등 인삼산업 관계자 160여 명이 모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에는 박범인 금산군수와 김석곤 충남도의회 의원,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을 비롯해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정책 논의에 힘을 실었다.

공청회의 핵심 강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금산 수삼센터 유통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 박사는 한국과 유럽의 주요 도매시장 사례를 비교하며 경매방식과 시장도매인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을 짚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인삼 도매시장 구조의 현주소를 짚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논의가 금산인삼 유통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범인 군수는 "신뢰받는 인삼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금산인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며 단계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 황선동기자